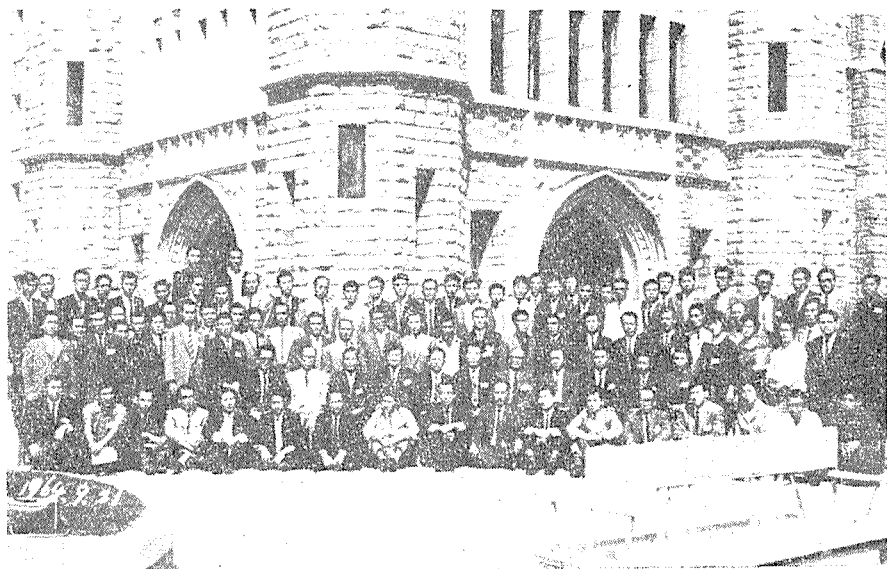


大學圖書館大會 會議錄(拔萃)

日時：1964年9月21日~22日(2日間)

場所：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大學圖書館大會記念

一. 開會式

司會：金漢洙(高麗大學校圖書館司書)=
現在 在席 118名으로 會議가 成立됨을 宣
言함.

1. 國民儀禮

2. 開會辭：李弘植(高大中央圖書館長)
=圖書館協會에서 全國大學圖書館大會를
開催한지 3年이 되었는데 그안에 各部門
別로 圖書館問題가 討議되어 왔습니다.

今年은 이 大會가 本校에서 開催하게 되
어 本人으로써 펴 기뻐해 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全國의 大學圖書館職員이 모
여서 같은 業務에 從事하면서 여러가지
業務上의 問題를 討議하고 平素에 갖지

못하였던 協助, 親善을 圖謀하자는 뜻에
서 모인것이라 생각합니다.

圖書館이 社會에서 그말은바의 使命이
얼마나 큰가는 세삼 말할 必要가 없을 줄
압니다. 特히 우리는 最高學부의 圖書館
에 從事하여 學術上의 여러 指導를 맡아
보는고로 그義務上의 位置가 重大합니다.

모든일에 있어서 아직 整鈍되지 않은 問
題點들의 解決策을 摸索하고 또한 將次協
助하기 爲한 무드를 造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과 來日 兩日間에 開催되는 이 大
會에서 오늘은 午前에 金斗鍾博士의 特別
記念講演이 있고 午後에는 直接 業務上의
일로서 議論을 할까 합니다.

來日은 圖書館運營全般에 걸친 問題點

을 討議하겠읍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멀리 濟州道와 各道로부터 오신분들에게 더욱 感謝합니다.

여러가지 進行上의 未熟한 點이 있더라도 諒解하여 주시고 誠實한 協助있기를 바라 마지 않읍니다.

人事말: 閔泳珪(韓國圖書館協會長)= (別紙掲載)

祝辭: 尹天柱 文教部長官(代讀文教部社會教育課長 陸秦城)(別紙掲載)

祝辭: 兪鎮午(高大總長)=오늘 大學圖書館의 여러분께서 本校에 와서 大會를 갖게된것을 歡迎합니다.

이 사람이 圖書館에 印象이 깊은 것은 3·1運動 前後입니다. 그 當時의 圖書館에 比하면 現在의 圖書館은 隔世之感이 있을 정도로 宏壯한 發展과 成長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大學院生의 研究를 爲해서 不充分하다는 것이 나의 判斷입니다. 大學院研究가 充分히 될수 있도록 彼此協助하여야 할것입니다.

어디서나 發展을 阻害하는것은 財政이 治足하지 못한것이 原因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半身不隨가 될수는 없지 않읍니까? 衆智를 모아 效果的인 圖書館運營을 研究하면 좋은 方法이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圖書館에 對한 훌륭한하고 具體的인 成果를 期待합니다.

끝으로 圖書館法이 草案되었을때 本人도 읽어볼 機會가 있었는데 具體的인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政府의 保護下에 두는 印象을 주었는데 政府의 保護下에 두는것은 좋으나 不必要한 干渉을 느끼게 하는 條項이 있다면 이는 改善되어야 할것입니다. 政府가 圖書館을 干渉하는 方向은 좋

다고 생각지 않읍니다.

政府는 不必要한 干渉이 아니고 圖書館發展에 協助하는 方向으로 되었으면 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二. 記念講演 演題: 「韓國의 書誌學的 展望」

演士: 金斗鍾博士(成均館大學校理事長)=圖書館協會의 事業中에서 重要한 事業의 하나인 大學圖書館大會의 會議에 本人이 招請받은 것을 感謝하며 罪悚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專門이 아니라 趣味로 書誌學을 三,四十年間 해왔을뿐입니다. 이미 이자리에 섰으니 제가 가진 조그만한 知識이라도 털어놓겠으니 이점을 諒解하여 주십시오.

題目은 現在나 未來의 우리圖書館에 對한 總括的인 問題로 「韓國의 書誌學的 展望」입니다.

우리의 圖書은 木版本과 活字本 두가지로 뚜렷이 區別됩니다. 陝川의 八萬大藏經을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圖書美로나 글씨 自體를 外國에 자랑할수 있는 것입니다. 글씨가 부드럽고 아주 훌륭하게 새겨진 것입니다. 이러한 木版本은 中國의 宋과 元으로 부터 影響은 받았지만 高麗의 獨自的인 版으로 特色이 있습니다.

活字本은 西洋보다 2百年이나 앞서 高宗 20年頃에 詳定禮文을 金屬活字로 박은 것 입니다. 活字本도 中國의 影響은 받았지만 獨自的인 發展을 해왔습니다. 壬辰倭亂以後 教化傳達, 國家法令, 宣傳文 등은 活字本으로 만든것입니다.

鑄字本은 남에게 자랑할수 있도록 훌륭할뿐만 아니라, 종이質도 中國보다 훨씬 낫아 活字本發展에 重要한 役割을 하여 왔읍니다.

이렇게 두가지가 發展해 왔는데 왜 書誌學이 學門化되지 않았을까? 中國에선 예전부터 책의 目錄이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商品化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엔 藏書家가 거의 없습니다.

六堂 崔南善氏는 藏書가 相當數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目錄을 해놓지 않았읍니다. 中國에서는 無識한 사람도 굳직한 生活을 하면서도 책을 모우고 膳腸品으로 책을 돌려서 自己 이름을 남기려고 했으므로 自然히 目錄學과 書誌學이 發達했읍니다.

내가 알기로는 北宋版이 우리나라에 數萬卷 들어왔다하나 한편도 보지 못했읍니다. 墨을 바르거나 休紙化 되었을 것입니다. 壬辰倭亂前에 故事冊을 八道에 備置해 9百餘種類의 版本이 있었다하나 壬亂 때 타버렸읍니다. 這間의 八道에 藏置된 冊版을 여러 文獻에서 수집하여 만든 目錄이 東國大學 圖書館에서 刊行한 「古書目錄集成」에 收錄되어 있습니다.

西洋人이 大端히 사치스럽게 여기고 高貴하게 여기며 칭찬하는 楮紙를 우리나라는 一般 국민에게 까지 普及되어 있었고 冊의 裝幀에 있었어도 中國의 影響은 받았지만 中國의 장정과는 달리 黃紙紅糸로써 우리나라 圖書의 特色이 있습니다.

이렇게 書誌學과 目錄學이 發達되지 못한 形便에 있어서 여러분은 古書의 材料, 形態, 木版等에 對한 研究를 많이 하셔서 書誌學을 發展시키길 기대 합니다.

司會：金漢洙=이상으로 午前會議를 끝마치고 午後 一時에 續開하겠읍니다.

(中食 12時~오후 1時)

三. 經過報告

司會：金漢洙=會議를 續開하겠읍니다.

討議에 앞서 이 大會經過報告를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第1回大會는 1962年 7月21日~22日 兩日間 中央教育研究所에서 公共, 學校, 特殊, 大學圖書館의 綜合大會를 開催하였읍니다.

第2回大會는 1963年 9月 13日~14日 兩日間에 서울法科大學圖書館에서 大學圖書館大會를 開催하였읍니다.

이번 第3回大會는 지난 7月24日 韓國圖書館協會定例理事會에서 同協會 行政分委가 提起한 今次大會計劃案을 承認했읍니다. 그後 지난 8月20日 圖協事務局에서 今次大會 準備委員會가 召集되어 同會議에서 議題 및 發表者를 選定하였읍니다. 그리고 지난 9月14日 高大圖書館에서 大會準備委員會會議를 開催하고 大會進行計劃을 作成하였읍니다.

그리고 지난 9月19日 本大會 準備最終會議를 高大圖書館에서 開催한 後 오늘大會를 맞이 했읍니다.

以上 간단히 經過報告를 드리었읍니다. 그럼 會順에 따라 議長選出을 하겠읍니다. 그 選出方法에 對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議長選出：朴熙永(韓國外國語大學圖書館司書長)=이 大會 開催의 主務學校인 高大圖書館長 李弘植先生님께서 議長을 맡아주시도록 추대할것을 動議합니다.

(이에 全員 贊成의 拍手가 있음)

議長：李弘植(高大圖書館長) 人事感謝합니다. 그러면 豫定대로 議題發表로 들어 가겠읍니다.

四. 議題發表 (別紙掲載論文參照)

議題：大學圖書館이 參考業務를 하려면

李鍾文(韓國圖書館協會事務局長)

大學圖書館의 相互協助問題

林東棟(春川教育大學圖書館長)
藏書의 自然減少 및 廢棄問題
鄭駁讓(中央大學校圖書館學科講師)
大學圖書館의 施設基準

玄圭燮(首都醫大圖書館司書長)
大學圖書館의 圖書購入費問題
朴永俊(東國大學校圖書館司書)

議長: 李弘植 = 以上으로 議題發表를 끝
마치겠습니다. 長時間 감사합니다. 우리
가 當面한 問題들의 討議는 來日로 미루
고 오늘 會議는 이만 끝입니다.

(午後 四時)

第二日(9月22日 午前 10時)

五. 全體討議 및 建議事項採擇

議長: 李弘植 = 어제 會議에선 몇분의
着實한 發表가 있었습니다. 그 發表 가운
데는 우리가 日常業務의 遂行에 있어서 切
實히 느끼는 問題點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當面한 隘路點에 對해서 여러분
의 活潑한 意見提出을 期待합니다.

우리의 이 大會가 아직도 日淺하여 未
熟하고 會議內容도 不充分한바 있습니다
만 해를 거듭함으로써 나아질것입니다.

이 機會에 同職者間에 親面을 가지는것
도 큰 意義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멀리 濟州道와 各地方에서 오신 여러분
에게 특별히 感謝드리며 平素의 苦衷과
意見을 忌憚없이 提出하여 짧은 時間이나
마 有効한 會議가 되길 바랍니다.

貧弱한 施設, 大學設置基準에 依해 雜
多한 藏書의 收藏, 外書購入에 不足한 資
金, 購入方法의 難關등 本職이 아니고 輪
番制로 任命된 圖書館長인 제가 생각할때
도 많은 어려운 難點들이 있습니다.

아무췌록 이 會議가 意義있는 會議가
되도록 좋은 意見들을 많이 말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白 麟(서울大學校圖書館司書課長): 제
가 말씀드릴것은 圖書館運營에 어떤 問題
點이 아니고 몇일前에 作한 우리의 同
志 漢陽大學校圖書館司書長 金泰律氏의
報告에 關한것입니다.

金先生은 激務에 過勞인지? 自己事務
室 册床에서 卒倒하여 두時間만에 殞命하
였습니다. 七十老母와 未亡人, 그리고 4名
의 子女등 아홉食口의 家長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遺族의 生計가 漠然할뿐만
아니라 圖書館에서 10餘年을 일해온 圖書
館人의 末路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
이 너무도 비참한바 있습니다. 故人 金
先生에 對한 冥福을 祈願함과 同時에 同
職者로서 우리 스스로의 生活도 反省하여
相互協助 또는 어떤 對策의 講求에 對해
論議해야 될줄 압니다.

강수연(濟州大學圖書館長) = 洋書購入에
있어서 유네스코 쿠폰의 迅速한 處理와
文教當局에서 大學圖書館 資料購入費를 爲
하여 全豫算에서 限界線을 定하는 方法等
을 建議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유네스코 쿠폰 使用에 不便한點
이 많습니다. 이에 對한 意見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千惠鳳(東國大學校圖書館圖書課長): 유
네스코 쿠폰使用은 정말 利用에 事務的으로
複雜할뿐만 아니라 時間이 오래 걸리고
또 책값도 一般市中 보다 實質的으로 싸
지 않습니다.

羅炳旭(慶北大學校圖書館長): 유네스코
쿠폰을 使用함에 있어 課程의 簡素화와
빠른時間內에 册을 入手 할수 있도록 이
번大會에서 유네스코와 文教部에 건의 하
는것이 좋겠습니다.

金永元(全南光州 朝鮮大學校圖書館長):

이大會에서 건의문 採擇을 작년에도 한 줄 알고 있는데 이의 處理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點 미리 알아보고 건의사항을 提出해야 될 줄 압니다.

成宅慶(韓圖協 總務部長): 昨年大會의 建議事項과 今年度 總會의 建議事項이 함께 關係要路에 建議하여 이의 回答을 지난 六月號 圖協月報에 揭載한바 있습니다.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崔星洛(서울教育大學圖書館司書長): 圖書館運營을 合理化하기 爲해서는 圖書館의 豫算을 庶務課에 구애 받지 않고 主體性을 가지고 執行할수 있는 對策이 마련되어야 할것입니다.

議長: 建議할 事項을 具體的으로 整理하기 바랍니다.

玄圭燮(首都醫大圖書館司書長): 根本要點은 法的인 어떤 救濟力을 具備하는 것 입니다. 사서자격규정, 豫算, 施設基準等이 科學的인 措置가되도록 協議會를 構成하여 文教部가 制定하는 圖書館法施行令에 反影토록 建議해야 할 줄 압니다.

李春熙(成均館大學校圖書館學科 科長): 建議事項으로써 유네스코 쿠티온 使用에 있어서 手續의 簡素化와 迅速한 圖書의 入手對策을 마련할것과, 制定中에 있는 圖書館法施行令制定에 우리의 委任研究委員을 選出하여 意見을 反影토록 하자는 두가지를 提議합니다.

羅炳旭: 거기에 追加하여 國公立大學圖書館의 職制가 確立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職制 確立을 文教部에 건의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李光宇(全南大學校司書長): 國立大學校中 서울大學校 圖書館에는 司書官補 卽 3級이 있는데 地方의 國立大學校圖書館에는 司書官補의 職制가 없고 4級의 職位가 있습니다. 故로 校內의 他機構에는 3級甲乙이 있으므로 圖書館運營이 頗 困難합니다.

李承周(서울大學校圖書館司書): 大學圖

書館의 職制는 早速히 是正되어야 할 줄 압니다. 現在 使用되고 있는 司書長이란 用語도 法的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圖書館의 課長이 庶務課의 係長보다 地位가 낮으니 이의 是正이 時急합니다.

議長: 그럼 ① 유네스코 쿠티온의 使用에 事務의 簡素化와 迅速化問題 ② 圖書館法 施行令制定에 專門職을 參與시킬것 ③ 國公立大學圖書館의 職制의 未備點을 改善할것 등이 建議事項으로 나왔습니다. 이제가지 事項을 建議事項으로 採擇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全員 이에 贊同)

朴東棟(春川教育大學圖書館長): 이제 充分한 討論이 되었다고 봅니다. 故로 採擇된 建議事項을 成文化할 建議文作成과 圖書館法施行令制定에 參與할 우리의 代表委員을 選定하여 委囑토록 動議합니다.

(이에 全員 贊同)

議長: 人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李春熙: 圖協의 行政分委와 여기에서 2,3人을 選定 追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姜應五: 國公立大學에서 五人 私立大學에서 5人을 뽑아 현안問題를 處理하도록 합니다.

李承周: 圖協行政分委를 主體로해서 處理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圖協의 行政分委와 2,3人을 追加하되 人選을 이大會의 準備委員에게 委任하는것이 어떨지요? (이에 全員 贊同)

千惠鳳: 이다음 第四次 圖書館大會開場場所를 지방에서 하는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찬성 발언 없음)

議長: 더 意見이 없으신지? (意見없음)
그럼 이것으로 今次大會를 끝마치겠습니다. 어제의 오후 二日間에 걸쳐 不便한 座席에서 좋은 研究發表와 또한 眞摯한 討論을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司會: 金漢洙: 中食以後 本校의 圖書館 및 博物館을 觀覽할수 있도록 開放되어 있사오니 觀覽하시기 바랍니다. (끝)

(正午 12時 10分 閉會)